



[라이프] “스토어 놀러오세요” 식품업계 거리 좁히기 분주 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한복 입고 라운딩... “전통에 스포츠 더한 ‘한복룩’ 만들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아리아  
강지혜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바로 골프다. 골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야외에서 적은 인원이 즐길 수 있으며,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워지자 해외 수요가 국내로 물리는 등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렸다. 새롭게 골프에 입문하는 이른바 ‘골린이(골프+어린이)’도 크게 늘었다. 40~50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프에 여성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대거 유입됐다. 최근 골프 신규 유입자의 65%가 20~40대였으며,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 유입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아리아’만의 장점...“편안한 한복 스포츠웨어”

골프웨어 산업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골프웨어에서 벗어나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이 주목받는다. 한복 골프웨어 ‘한아리아’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지혜 대표는 “한복에 스포티함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리아는 국내 최초로 한복적인 요소를 담은 디자인에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골프웨어를 제작한 한복 골프웨어 대표 브랜드다.

강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한복을 좋아해 생활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한다.

강 대표는 “지난 추석 라운딩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날도 날인 만큼 한복을 입고 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래도 기능성 옷이 아니다 보니 스윙하면서 팔 부분이나 어깨 부분 등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보이는 분들마다 한복 스타일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그러면 왜 한복 골프웨어는 없을까? 없으면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의류디자인학과와 스포츠과학과를 모두 전공했다. 두 전공이 브랜드 한아리아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그는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자인, 봉제 등은 의류디자인학과에서 배울 수 있었으며, 인체 기능, 운동 역학 등 신체 근골격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떤 동작에 어느 근골격이 사용되는 지 스포츠과학과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서 신체 움직임에 따라 더욱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골프웨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 옷을 입어 보고 수정해나가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다. 편안한 한복 스포츠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스포츠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축성’과 ‘기능성’을 꼽았다. 신축성이 있는 스판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 스윙 시 어깨나 팔 부분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는 “골프에서 스윙을 하든, 테니스에서 스윙을 하든 스포츠에서는 각 퍼포먼스에 맞는 기능적인 디자인과 원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퍼포먼스에 맞게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정해나가는 작업을



강지혜 한아리아 대표.

국내 최초 한복 요소 담은 골프웨어 의류디자인·스포츠과학 모두 전공 신체 움직임 맞춘 의류 제작에 도움

강렬한 원삼 색감에 기능성 원단 더해 편안하면서 돋보이는 골프웨어 제작 한복 세계로 알리는 브랜드 만들 것

통해 편안한 한복 스포츠웨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아리아만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한복 원단이 아니다 보니 한복을 제작하는 곳에서는 기능성 원단을 가지고 한복 디자인을 구현해내기 어려웠으며,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한복의 디자인을 살리기 굉장히 힘들어했다”며 “이 두가지를 잡기 위해 많은 곳과 상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한복 골프웨어를 표현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티한 한복룩’ 하나의 장르로 만들고 싶어”

한아리아의 디자인은 모두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한다.

강 대표는 “한아리아의 가장 첫번째 라인인 베이직 저고리 세트 같은 경우 조선시대 왕비가 제례나 대례 등 왕궁 의례 행사에서 착용한 원삼의 색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며 “강렬한 빨강과 파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색인 만큼 그 색을 살려서 필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성 골프웨어만 출시돼 있으나, 향후 남성복도 출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여름 시즌(남성복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남성복 역시 저고리의 동정과 깃을 살린 형태이며, 빠른 속도로 땀과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쿨 원단을 사용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향후 한아리아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묻자 강 대표는 “한복 골프웨어를 넘어 ‘스포티한 한복룩’을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 내고 싶다”며 “더불어 국내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작업해 최종적으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입을 수 있는 멋진 제품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다양한 생활한복들이 나오고 한복 또한 하나의 패션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패션 브랜드들과 함께 우리 전통의 미를 세계적으로 함께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팬스 직격 2루타’ 김하성, 4경기 연속 장타 /사진 뉴시스  
▲ ‘2700K’ 커쇼, MLB 다저스 탈삼진 1위 등극

▲ 레알 마드리드, 35번째 라리가 우승...안첼로티 유럽 5대 리그 석권  
▲ 리버풀 1위 오르지 불과 5시간만에 맨시티 재탈환



▲ 박항서 감독, 베트남 어린이병원에 1000만원 기부  
▲ 류현진, 3이닝 라이브피칭...복귀하면 1+1으로 나설수도 /사진 뉴시스